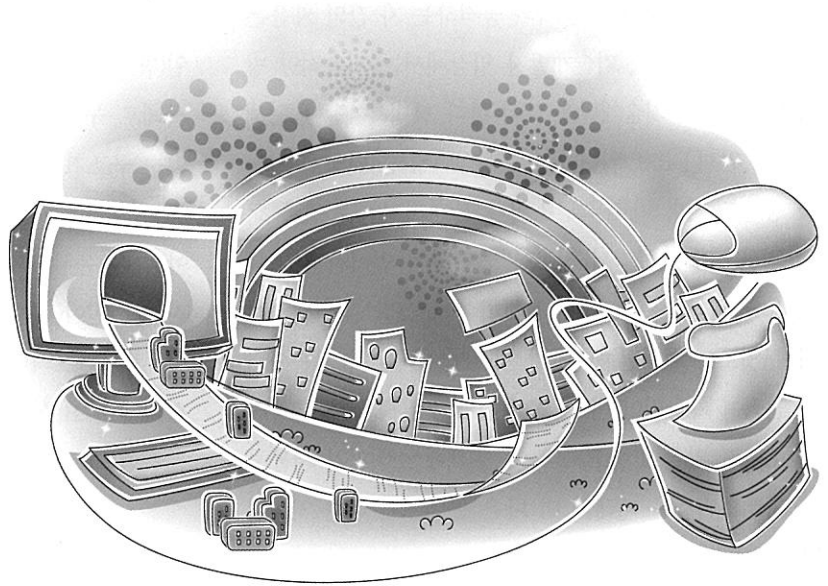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

오상훈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 간사,
(사)미래콘텐츠전략연구소 소장



1. 머리말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은 2009년 4월 TTA로부터 IT 전략포럼으로 선정되어 저작권 분야에서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저작권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국내외 저작권 관련 표준화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저작권의 침해와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관리기술 및 보호기술을 개발함을 물론, 저작권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저작권 관련 정보 및 기술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환경에서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디지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어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산업계 종사자들의 요구사항

을 수렴하는 채널의 역할로서 저작권 시장의 이슈를 파악하고 수렴해 저작권 관련 권리 관리 정보 및 저작권 관련 기술 등의 표준 제정 및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포럼 활동을 통해 저작권 전문가들이 공통의 관심을 논의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장을 마련하여, 불법 콘텐츠 범람으로 합법 콘텐츠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이때 디지털콘텐츠 및 스마트콘텐츠 선순환 유통 에코 시스템을 정립하면서 저작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저작권 권리 관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표준화를 필두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DCAN(Digital Copyright Asian Network) 사업을 통해 아시아 국가 간의 국제적인 교류로 발생하는 저작

물의 불법 복제 및 이용 등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정책적 표준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아시아 국가 간의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이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한류문화에 따른 아시아 진출을 위한 저작권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은 숭실대학교 한경석 교수를 의장으로 하고 (사)미래콘텐츠전략연구소(RICS)가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7개 대학, 16개 기관 및 협회, 36개 산업체 등 약 9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향후 아시아 국가 간의 민간 표준화 국제활동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들의 교류 채널을 위한 다양한 그룹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한중일 간의 디지털식별체계 관련 표준화와 저작권정보 교류를 위한 표준화

를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2. 포럼 현황 및 활동

2.1 창립 및 목적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은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국내의 표준화와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표준 및 사실 표준(Defacto Standard) 개발, 국내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유통 경쟁력 강화와 기술·서비스 발전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자 2003년 IT 전략포럼 ‘디지털콘텐츠포럼’으로 발족하였다. 2009년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2010년에는 DRM 포럼과 통합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포럼 주요 연혁은 <표 1>과 같다.

〈표 1〉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 연혁

연도	내용	연도	내용
2003	· 2003년 IT 전략포럼으로 선정(기존 『e-Book 표준화 포럼』을 분과로 흡수) ·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응용, 기술, 정책) 구성 추진 · 디지털콘텐츠포럼 창립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 디지털콘텐츠포럼 커뮤니티 사이트 개설(http://www.dcforum.or.kr) ·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 · ‘국제 디지털콘텐츠 컨퍼런스 2003, 서울’ 개최	2009	·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워크숍 ·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 창립총회 및 운영위원회 · 디지털콘텐츠와 저작권 산업의 제도적 기반 · 국제협력을 위한 중국·일본 기관 방문 및 MOU 체결 · 자유이용라이선스 저작물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술 및 서비스 발전 방향 워크숍
2004	· 디지털콘텐츠포럼 2004 총회 및 운영위원회 · IT FORUM Korea 2004 · ‘국제 디지털콘텐츠 컨퍼런스 2004, 서울’ 개최	2010	· DRM 포럼과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 통합,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으로 활동 승인 · ICT Forum Korea 2010 · 국제표준 식별자와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Importance of ISO Identifier in Efficient Copyright Management) · DRM 프로젝트그룹 워크숍 · Digital Copyright Asian Network Workshop 2010 · 디지털저작권학회 학술대회
2005	· 디지털콘텐츠포럼 2005 총회 및 운영위원회 · IT FORUM Korea 2005 · ‘국제 디지털콘텐츠 컨퍼런스 2005’ 개최	2011	·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 2011 총회 및 운영위원회 · ICT Forum Korea 2011 ·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DCAN 워크숍 · ICOTEC(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 2011
2006	· 디지털콘텐츠포럼 2006 총회 및 운영위원회 · 디지털콘텐츠 관련 표준화 세미나	2012	·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 2012 운영위원회 · ICT Forum Korea 2012 ·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DCAN 워크숍 · ICOTEC(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 2012 · 국가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워크숍
2007	· 디지털콘텐츠포럼 2007 총회 및 운영위원회 · 제7회 디지털콘텐츠 컨퍼런스 개최		
2008	· 디지털콘텐츠포럼 2008 총회 및 운영위원회 · IT FORUM Korea 2008 · u-Paperless&표준화 세미나 개최		
2009	· ICT Forum Korea 2009 · 음악 분야 권리 관리 정보 표준화 워크숍 · TTA,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으로 명칭 변경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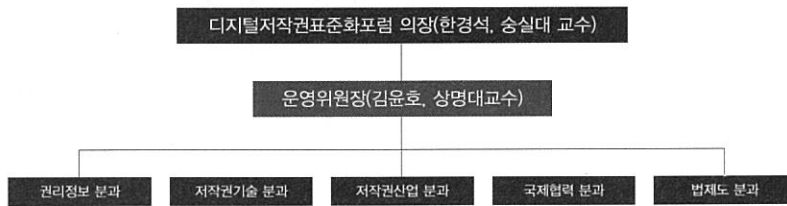
2.2 조직 및 회원 현황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 의장, 운영위원장,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운영위원회 및 분과별 회의와 연계하여 연 1회 개최되며 운영위원회는 포럼의 운영 및 집행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방향 및 계획수립을 위해 산학관련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는 연구 활동 및 표준과

제 도출을 위한 정기회의가 개최되며 저작권 표준화 단체, 기업, 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구성돼 워킹그룹(Working Group)별 표준(안) 작성을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

2.3 주요 사업 및 활동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은 디지털저작권 및 스마트콘텐츠 산업 관련 기술 표준화 추진을 위해 국내 기술 표



[그림 1]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 조직도

<표 2>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 역할 및 분과 활동

명칭	주요 업무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및 회비 규정, 분과위원 구성 등 포럼 운영 전반에 관한 활동 · 국내외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지원 · 아시아 지역 국제협력을 위한 방안 모색 · 디지털저작권학회 및 학술 세미나 준비 등의 역할 지원 · 산업계의 요구사항 수렴 및 기관 협력을 위한 활동 · 정기적인 디지털저작권산업 분야의 정책·제도적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 국내 포럼 회원사 유치 및 가입을 위한 지원 활동
분과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활동 및 표준과제 도출을 위한 정기회의 개최 · 워킹그룹(Working Group) 표준(안) 작성을 위한 작업 진행 · 표준(안) 개발을 위한 표준문건 작성 및 검토
권리정보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권리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성, 수집 및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저작권 산업 각 분야별 권리관리정보 메타데이터의 표준화를 추진 · 현재 권리정보분과 내 음악, 방송, 스마트콘텐츠, 저작권기술 분야의 워킹그룹이 활동
저작권기술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의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술의 국내외 동향을 추적하고 도입을 위한 기술 표준화를 추진 · DRM, 워터마킹, 포렌식 마크 등의 기술적 보호 조치에 관한 연구 및 저작권 산업 내 활용을 위한 방안 모색
저작권산업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저작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지원 사항 논의 · 저작권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국제협력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를 중심으로 저작권의 보호 및 침해 관련 공통 표준화이슈 논의 · 각국의 저작권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 결과물을 공유하고 공동 협력 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 협력 추진
법·제도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저작권 기술적용, 이용활성화 및 저작권 산업의 증진 등을 위해 요구되는 관련 법·제도에 관한 이슈 논의 · 향후 법·제도 등의 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의견 수렴 및 방안 마련

준 연구와 국내 기술 표준 보급 활동, 국내외 표준기술 정보교류, 신규 표준과제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메타데이터의 국내외 표준 개발 및 동향 연구 지원, 저작권 및 저작물 관리와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식별 체계 활용 표준화, MPEG 등 국제 표준화 및 TTA 국내 표준화 활동, 국내외 DRM 표준화 및 기술 동향 분석, 저작권 표준화 기구와의 협업 및 공동연구, 표준화 활동으로 전문가 워크숍, 세미나, 국제행사 진행, 스마트 환경의 저작권 표준화를 위한 산학연 간의 지속적인 협력 진행, 국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Digital Copyright Asian Network)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2.4 향후 활동 계획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은 12월 6일부터 8일까지 2012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 2차 워크숍'을 개최한다. 한해를 마감하면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 분과별 2012년 활동 보고와 2013년도 사업계획, 포럼 운영방향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저작권 용어 표준화, 저작권 및 스마트콘텐츠 기술 동향에 관한 주제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3. 맺음말

디지털저작물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사용하기 위한 디지털콘텐츠산업 전반에서 저작권 문제는 너무 중요하고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권리자와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통해 새로운 창작 활동의 선순환구조를 필요로 하고, 사업자는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을 새로이 만들어가고 있다. 저작권 분야는 디지털 시대를 맞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접하고 있고, 기존의 법률과 사례로써는 해결하지 못하는 범위와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관련 표준화는 이러한 산업 전반

에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저작권에 대한 소재 정보를 기본으로 사업자 간 또는 국가 간의 정보 표준화가 기본적인 요구사항인 것이다. 이에 포럼에서는 향후 관련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와 더욱 발전하는 디지털저작권표준화포럼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 